

가톨릭신자들의 종교공동체
참여가 환경 및 사회문제의
시민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
신앙지식과 종교성의
이중매개효과

진범섭
홍익대학교

가톨릭신자들의 종교공동체 참여가 환경 및 사회문제의 시민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 신앙지식과 종교성의 이중매개효과

진범섭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부교수

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학, 심리과학, 종교학

주제어 사회적자본, 사회적정체성, 신앙지식, 종교성, 시민참여, 생명수호

요약문 환경·인권·생명문제 해결 또는 완화를 위한 노력은 종교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 종교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공동체 내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시민적 참여를 시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교회공동체의 본래적 역할에 주목하여 가톨릭교회 구성원들의 공동체참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환경·인권·생명문제를 위한 시민적 참여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톨릭교회 모 본당에서 수집된 응답자료를 가지고 이중매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종교공동체 참여는 신앙지식과 종교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신앙지식은 종교성과 시민적 참여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종교성 역시 시민적 참여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종교공동체 참여와 시민적 참여의도와와의 관계에서 신앙지식과 종교성의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종교공동체 참여→신앙지식→시민적 참여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가톨릭교회 신자들의 종교적 요인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갖는 함의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앙지식과 종교성의 매개역할을 통해 교량 사회적 자본이 창출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I.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최근 기업경영의 사회적·윤리적 책무를 강조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보호, 사회가치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들의 역할과 기여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기관인 종교조직들의 본래적 역할 중 하나인 공공성의 가치를 상기시킨다. 특

히 스미스(Smith, 1996)는 사회운동참여에 있어 종교조직의 자산을 강조하면서 종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도덕적 명령, 소통채널, 조직의 연결망과 연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가톨릭교회의 경우 2004년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가 발간한 ‘간추린 사회교리(The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가르침을 선포하였다(유경춘, 2009).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공적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천주교회는 ‘생명주일’ 및 ‘인권주일’과 ‘생명의 신비상’ 제정, 교회 내 정의평화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생명과 환경의 고귀함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전해오고 있다.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 또는 완화를 위한 가톨릭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최근의 선행연구(경동현·이미영, 2021)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성직자·수도자·평신도들의 78.3%가 향후 기후위기나 생태문제 등 새로운 요청에 부응하는 사도직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동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적역할수행의 중요성에 대해 97.2%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지역사회봉사와 시민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해 89.5%가 찬성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환경·생태·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구성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지지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회의 공적 역할과 사회참여활동은 단순히 그 지도자와 일부단체만의 참여가 아니라 평신도 구성원들의 전반적 지지와 동원이 필수적이다(정규현·오세일, 2021). 이는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여는 사회교리라는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는 신자의 개인적 종교행위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사회의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을 실현하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행동이다.

시민적 덕목을 창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신뢰, 연결망(network), 사회적 참여가 핵심이며,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으로 명명되었고 콜만(Coleman, 1988)과 퍼트남(Putnam, 1993, 1995, 2000)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론화되고 대중화되었다. 사회적 자본이론의 핵심은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연결망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연대를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Putnam, 2000).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활동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종교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연계(tie)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Putnam, 2000; Putnam and Campbell, 2010). 국내의 선행연구들 다수 역시 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동의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일관되게 드러난 조사결과들이 부족한 상황이다(정상호·조광덕, 2016). 이러한 연구흐름에서 본 연구는 가톨릭교회의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공동체 참여가 환경·사회문제(예: 생명수호, 환경보호, 인권보호)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종교공동체 참여와 환경·사회문제 참여의도와 의 관계에서 종교적 요인들(신앙지식과 종교성)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사회적 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and Turner, 1986)’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운동과 같은 시민적 참여행위가 인지적(cognitive) 차원과 같은 사회심리학의 미시적 관점에서도 접근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Eyerman and Jamison, 1991). 이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연결망의 역할 외에도, 종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이 신앙지식과 종교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선을 실천할 행위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가톨릭신자들의 신앙공동체참여가 어떠한 종교적 결과들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시민적 행동의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회의 개인적·공적 역할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시민적 참여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사회학 및 정치학 분야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여 이론적 발전을 거쳐 왔는데, 특히 콜만(Coleman, 1988)과 퍼트남(Putnam, 1993, 1995, 2000)에 의해 구체적으로 개념화되었다. 콜만은 사회적 자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특정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 사회구조적 특징을 지니며, 그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 행위를 촉진케 한다” (Coleman, 1988: 98).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자본이 개인, 단체, 영리·비영리조직들과 같은 여러 독립체들의 사회관계·구조·연결망 안에서 발생하며 상호호혜적 목적을 달성케 하는 행위를 이끌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콜만(1988)은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 특성 안에서 독립체들 간의 이익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능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반면, 퍼트남(Putnam, 1993, 1995, 2000)은 신뢰, 호혜성, 사회적 연결(ties)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케 하는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으로 정의했다(Putnam, 1995: 67).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 자본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유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민적 덕목을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퍼트남(Putnam, 2000)은 사회적 자본이 정치·신앙·자선행위 참여와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시민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증적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을 통해 낮은 범죄율, 높은 수준의 교육성·건강·경제, 시민적 평등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건실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양적 수준을 형성하는 관계성과 규범을 통해 공동체의 경제적 자산축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Goddard, 2005).

사회적 자본이론이 발전해 오면서 구성요소(resources)의 정의 또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정현·정문기, 2019). 특정 사회의 문화와 맥락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에 이러한 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자본의 지표들에는 신뢰, 네트워크, 참여가 포함된다. 신뢰란 주로 대인관계 차원에서 인지적 차원으로 개념화되며, 다른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Jin and Kim, 2014).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조직과 제도에 대한 신뢰 역시 포함될 수 있다. 퍼트남

(Putnam, 2000)은 신뢰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네트워크란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결성, 상호작용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개인이 가입한 그룹과 이웃과의 관계성(neighborliness)을 포함한다. 이러한 신뢰와 사회 네트워크를 밑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은 시민적 덕목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예: 자원봉사, 투표, 시민단체후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이준웅 외, 2005).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시민적 ‘참여’에 주목한다. 시민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모임에 참여하는 개인의 행위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대인간 신뢰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연대와 협력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적 참여행위는 구성원들 간의 연결, 상호작용과 관계성 안에서 촉진될 수 있으며, 또는 이러한 시민적 참여행위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질적 및 양적인 연결·상호작용·관계성이 고취될 수 있다. 퍼트남(Putnam, 1993)은 시민적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가 소통과 신뢰의 토대가 되며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자본이 축적될수록 해당 공동체는 신뢰가 쌓이고 협동이 유지되며, 그 구성원은 정보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이준웅 외, 2005). 참여라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과 상호작용이 구성원들 간의 연결망과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해당집단 안에 내재된 무형자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즉, 사회적 자본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연결망 안에 존재하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이다(Lin, 2001).

2. 사회적 자본과 종교공동체

다원화 시민사회에서 종교와 종교공동체는 사회적 자본 창출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전명수, 2016). 퍼트남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공동체는 미국에서 거의 틀림없이 단일 부분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보고이다”(Putnam, 2000: 66)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종교공동체의 역할로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헌신하게 되며, 간접적으로는 조직의 기술, 도덕적 가치, 이타주의를 함양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종교공동체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이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 가치 아래 신뢰적 관계를 쌓고 협력하며 윤리적 실천을 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공동체의 벽을 넘어 타 집단과의 교류와 상호소통을 통해 시민적 덕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공동체의 역할은 퍼트남이 개념화한 다음의 두 가지 사회적 자본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퍼트남(Putnam, 2000)은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결속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일종의 사회학적 ‘강력접착제(super glue)’로서 집단 내부구성원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종교, 인종, 가치를 지닌 구성원들은 상호신뢰를 쌓고 자신들의 연결망을 통해 협력, 호혜와 연대를 이룬다. 특히 조직 내에서 동료 구성원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결속 사회적 자본은 그들의 문제해결 협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접착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결속 사회적 자본은 협소한 사회적 유대와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교량 사회적 자본은 “외부 자산과의 연결과 정보 확산” (Putnam, 2000: 22)에 적합하다. 이는 특정 조직 구성원들이 더 넓은 정체성, 상호작용, 호혜성을 생성할 수 있는 사회학적 “윤회유(WD-40)”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종교, 인종, 이념을 지닌 집단들이 함께 연대하고 상호소통하기 위해서는 집단들 간의 교량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교량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이질적 공동체들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원화된 사회에서 시민적 정신을 발휘하는 기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두 유형을 통하여 우리는 시민사회에서 종교와 종교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종교기관들이 사회적 자본 생성과 축진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내는 조직이며(전명수, 2016; Putnam, 2000; Putnam and Campbell, 2010), 교회는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와의 연대를 포함한 비공식적·공식적 사회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이다(Ellison and Sherkat, 1995). 종교공동체는 사회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를 규칙적으로 제공하며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것이다(Sherkat and Ellison, 1999). 이는 종교공동체 내부의 결속 사회적 자본이 외부의 조직과 공동체로 연계되고 확장할 때 다양한 정치사회적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퍼트남과 캠벨(Putnam and Campbell, 2010)은 종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참여는 그들의 종교공동체의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결과로 이해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3. 종교공동체 참여의 결과: 신앙지식, 종교성, 시민적 참여

퍼트남은 그의 저서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에서 “종교 기관은 전통적인 예배를 넘어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직접 지원한다. 교회는 시민 기술, 시민 규범, 지역사회의 관심사, 시민 모집을 위한 중요한 인큐베이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Putnam, 2000: 66). 이를 위해 교회와 같은 종교공동체를 통하여 그 구성원들이 공공선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종교공동체가 시민적 참여의 유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명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Putnam and Campbell, 2010)에서는 종교공동체 참여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외부로의 사회적 참여를 낳을 수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내의 친구 수치·소모임 참여회수 등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강할수록 구성원들의 시민적 참여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들 다수 역시 종교가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는 있으나,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 간의 사회참여라든지 종파들 간의 사회참여의 차이가 일관되게 드러난 연구결과들은 아직 부족하다(정상호·조광덕, 2016). 이러한 연구흐름에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공동체 참여가 어떻게 시민적 참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저를 이론적 토대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1) 종교공동체 참여와 신앙지식 : 커뮤니케이션 관점

먼저, 종교공동체 참여는 특정 믿음의 체계와 관련된 여러 종교의식들과 실천이 포함된다. 종교적 예배와 신앙교리 및 가르침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학습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면 구성원들은 종교적공동체 참여를 통해 종교적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들의 개인적·신앙적·공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은 대화(dialogue)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이해하고, 가치롭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미를 구성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역동적이고 상징적인(symbolic) 과정이며, 이를 통해 개인들은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된다(Fortner, 2007). 즉, 종교적 의미를 구성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역동적·상징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가 종교콘텐츠와 정보에의 접근 또는 노출이 될 수 있다. 종교공동체에 참여하는 가운데서도 보다 개인의 의지가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종교공동체 내의 소모임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 친교를 넘어 신앙 내재적 본질이 반영된 소모임에 참여함으로써 구성원 각자는 종교콘텐츠·정보에 접근하게 되고 지식에 노출이 된다. 종교공동체 참여율이 높을수록 그 구성원들은 자신의 믿음(faith)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신앙적 신념, 원칙,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기회를 더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관련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경우 종교예배에 더 많이 참여를 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보다 높은 신앙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ew Research Center, 2019).

사회적·개인적 측면에서의 신앙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천(source)으로서 교회공동체에의 참여는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가치 있는 지식을 쌓고, 타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상징적 의미를 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요구된다. 하버마스(Habermas, 1989)가 주장한 ‘공론의 장(public sphere)’이라는 개념을 이것에 적용한다면, 건전한 종교공동체는 폐쇄적인 방식이 아닌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종교공동체 구성원들 모두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종교적 지식획득 기회와 상황적 요소들에 접근함으로써 신앙지식을 쌓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public sphere)에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천주교회는 주교회의 소속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하여 교회 구성원들인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사회교리를 교육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생명주일이나 인권주일을 제정하여 생명수호, 인권보호, 환경보호와 같은 교회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신문·방송·인터넷·출판서적 매체와 교육강좌·시민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사회교리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된다. 요컨대, 종교공동체라는 사회적 장소에 참여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은 신앙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소통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종교공동체 참여율이 높을수록 그들의 신앙지식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1 : 가톨릭신자들의 종교공동체 참여빈도가 많을수록 그들의 신앙지식 수준은 높을 것이다.

2) 종교공동체 참여와 종교성 : 사회적 정체성 이론

종교공동체 참여는 신앙지식 외에도 구성원들의 종교성(religiosity)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성은 다면적 개념으로서 하나의 단일한 특성으로 정의내리기 어렵다(Holdcroft, 2006). 심리학자들의 경우 헌신(devotion), 거룩함(holiness), 경건함(piousness)의 차원을 종교성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반면, 사회학자들은 종교기관가입(church membership), 출석(attendance), 신념수용(belief acceptance), 교리지식, 신앙생활을 종교성의 개념으로 간주하곤 한다(Cardwell, 1980).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의 개념을 단순히 종교공동체에서의 출석 등과 같은 면에 제한시키기보다는 좀 더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성은 개인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이 믿는 종교적 가르침의 가치, 규칙, 의무, 실천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얻는 내적 상황(state)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종교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종교적 가르침을 학습하고 흠송의 대상인 신의 존재를 경험하며 신앙적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함양된다. 즉, 적극적인 종교공동체 참여를 통해 해당 종교의 신조와 가치 등을 학습·경험하며 공동체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종교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이하 SIT; Tajfel and Turner, 1986)에 주목한다.

타즈펠이 제안한 개념인 사회적 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식, 집단 소속감에 따른 가치 그리고 정서적 의미로부터 비롯되는 자기 개념”(Tajfel, 1978: 63; 한대회, 2019, 372 재인용)이다. 이것은 한 개인이 특정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y)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당 집단범주 아래의 구성원으로 위치함으로써 자기를 규정하고 자부심(pride)과 자존감(self-esteem)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소속감은 인지적, 평가적, 감정적이라는 차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자존감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을 취하게 된다(한대회, 2019). 예를 들어, 자신을 가톨릭신자로 분류했다면,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가톨릭신자들이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집단의 규범과 가치를 따르게 된다. SIT는 한 개인이 자기 개념을 소속된 집단에서 규정하느냐 자기 자체로부터 두느냐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SIT는 성경에서 드러난 집단 간 및 집단 내 역학 관계와 사회적 정체성 형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휴리스틱 도구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Baker, 2012).

특히, SIT는 공식적인 종교참여 빈도와 종교적 사회적 정체성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Greenfield and Marks, 2007). 그린필드와 마크스는 공식적 종교참여(사회집단의 외부특징)와 종교적 사회적 정체성(한 개인이 경험하는 해당 집단의 심리적 경험)과의 관계는 집단의 특징과 그 구성원의 주관적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역할·규범과 같은 조직의 특성이 조직 구성원의 사회인지적 체계로 내재화되며, 그 구성원의 인지적·동기적 상태가 집단의 특징을 도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토대로 종교공동체 참여가 종교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규범, 가치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지식적, 평가적, 감정적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강할수록 자신의 종교성, 즉 일상생활 가운데 종교적 가르침의 가치, 규칙, 의무, 실천을 통해 얻는 내적 상황이 형성·유지·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적어도 매주 종교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절대자에 대한 신념(예: 절대자의 기도응답과 개입에 대한 믿음)이 더 두드러졌고(Gallup, 2022), 기도실천빈도 역시 더 많았다(Pew Research Center, 2014). 앞선 이론적 근거와 관련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종교공동체 참여는 그 구성원들 자신의 종교적 믿음·실천·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하며, 궁극적으로 종교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2 : 가톨릭신자들의 종교공동체 참여빈도가 많을수록 그들의 종교성 수준은 높을 것이다.

3) 종교공동체 참여와 시민적 참여

앞서 검토한 대로, 종교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이자, 도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제공해 준다(Sherkat and Ellison, 1999).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종교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촉진시키고 집단적 움직임을 꾀할 수 있다(Warner, 1997). 특히, 종교공동체 참여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사회연계(예: 교회 내 가까운 친구의 수, 소모임 참여 등)는 그 구성원들의 사회참여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 역할을 담당한다(Putnam and Campbell, 2010). 즉, 종교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연결망이 구성원들의 종교성 그 자체보다 사회적 참여에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견해와 서구의 연구결과들에 대해 국내 연구들 다수 또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으며 관련연구결과(송재룡·조광덕, 2015)도 있다. 예를 들어, 정희옥(Jeong, 2010)은 시민적 참여행위(자원봉사기관 가입 및 활동)에 미치는 종교소속(religious membership)의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국내 가톨릭, 개신교, 불교 신자들의 종교소속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불교신자들과 달리 가톨릭과 개신교인들 순으로 더 높은 시민적 참여행위를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강철희(2009)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 참여시간에 있어 가톨릭, 개신교, 불교의 순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종교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합의된 국내연구결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정상호·조광덕, 2016). 이러한 점에서 종교공동체 참여와 시민적 참여와의 관계를 검증할 추가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론을 근거로 종교공동체 참여가 국내 상황 중 가톨릭교회 공동체모임에의 참여가 시민적 참여를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RQ1 : 가톨릭신자들의 종교공동체 참여빈도가 많을수록 그들의 시민적 참여의도는 어떠한가?

4. 신앙지식, 종교성과 시민적 참여 간의 관계성

인간의 인식과 행위변화를 미시적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지식은 개인의 학습과 인지과정에 있어 정보처리 활동과 같은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브릭스(Brucks, 1985)는 지식을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의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전자는 개인의 기억 속에 실제로 저장된 특정 대상·이슈에 관한 정확한 정보로 설명하였고, 후자는 개인이 해당 대상·이슈에 대해 얼마나 많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확신(self-confidence)이라 정리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을 합하여 브릭스는 사전지식(prior knowledge)라 명명하였고, 이러한 사전지식의 수준이 개인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앙지식 역시 개인의 객관적·주관적 지식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종교공동체에서 설교하는 신앙교리·가치·규범 등의 정보가 그 구성원들에게 전달될 때 각 개인의 인지에 기억되는 지식·정보,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는 신앙지식에 관한 삶의 자기확신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고찰한 종교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참여행위와의 관계가 종교성보다는 사회적 연결망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회적 자본이론(Putnam, 2000; Putnam and Campbell, 2010)에 관해 본 연구는 이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미시적 과정에 주목한다. 종교공동체 가운데 여러 신앙소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효과를 단순히 사회적 연결망에만 제한시키기보다는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요인들의 기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신앙지식이라는 변인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종교성을 고취시키며 사회적 참여의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신앙지식이 종교성과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정은 SIT라는 이론적 명제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SIT(Tajfel and Turner, 1986)는 특정 집단이 보유한 집단적 가치와 신념이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가치체계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집단 내 구성원의 자기정체성은 집단의 정체성을 통해 생성·발전된다. 특히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동기(motive)에는 소속(belonging), 의미(meaning), 지속성(continuity)이 포함된다(Eskelinen et al., 2021; Vignoles et al., 2006). 소속이란 종교가 자신에게 집단 소속감을 제공하는 동기이며, 의미는 종교가 자신의 삶과 존재를 위한 중요성과 목적을 찾도록 하는 동기이고, 지속성은 시간과 상황을 넘어 종교가 자신에게 지속적 감각(sense/feeling)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자기정체성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것은 해당 종교공동체에서 선포하는 신앙교리·가치·규범 등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다. 특히 종교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발견케 하는 동력은 신앙지식을 통해 축전된 삶의 가치와 의미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이는 신앙지식이 자신의 정보체계과정 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넘어 자기확신과 종교적 정체성을 표출하고 제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종교공동체에서 전달되는 신앙정보와 지식의 습득경험을 통해 자기의 고유한 의미와 존재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종교성이 생성·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H3 : 가톨릭신자들이 인식하는 신앙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종교성 수준은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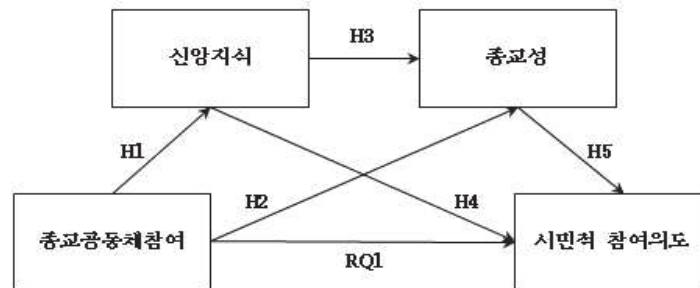
신앙지식은 또한 종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시민적 참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지닌 신앙에 관한 객관적 지식·정보와 그것에 대한 주관적 자기확신은 자기정체성으로서의 행위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동일화(group identification) 과정으로 이해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헌신도가 높은 이들은 그 집단소속감(group membership)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Verguyten, 2007). 자신이 속한 종교공동체의 특징을 짓는 신념과 가치가 자기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는 동일화 과정은 그 공동체에서 습득되는 신앙지식과 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체험된 신앙지식은 자기의 종교적 정체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하는 방법으로서의 행위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정규현과 오세일(2021)은 종교교육과 교회의 사회참여태도와 유의미한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는데, 가톨릭본당교육 참여와 같은 종교교육 변인이 평신도들이 인식하는 교회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이들의 연구가 종교교육 참여 변인을 신앙지식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 입장을 습득하는 경로로서 고려했다는 점에서 가톨릭신자들이 개별 본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앙지식과 교리를 체험하고 습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가톨릭신자들을 위한 교리교육 프로그램이 궁극적인 사회참여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질적연구사례(오일창, 2017)와 유사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요컨대, 종교공동체에 소속되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강화할 신앙지식과 교리를 습득·성찰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식과 행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H4 : 가톨릭신자들이 인식하는 신앙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시민적 참여의도는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성 역시 개인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판단된다. 앞서 검토된 SIT에서의 사회적 정체성은 집단구성원이 특정 사회적 범주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기규정을 통해 자부심과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개인의 종교성이 자신이 속한 종교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정규현과 오세일(2021)의 연구에서는 종교성이 가톨릭교회의 사회참여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성을 가톨릭신자들의 교회소속에 대한 자기평가로 고려하여 ‘신자로서의 긍지·자부심’ 및 ‘타 구성원과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방식은 SIT관점에서 종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H5 : 가톨릭신자들이 인식하는 종교성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시민적 참여의도는 높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1]은 검증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의 모 지역성당에서 진행한 신앙생활현황 설문조사결과를 수원교구 사목연구소의 승인을 통해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이틀간 주일미사에 참례한 만11세 이상의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최종유효표본은 845명 (N=845)으로 전체신자의 22.4%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1. 조사도구

분석에 사용된 주요변인들로 종교공동체 참여, 종교성, 신앙지식, 시민적 참여의도가 포함되었고, 이외에 5개의 통제변인을 사용하였다.

1) 종교공동체 참여

종교공동체 참여란 자신이 활동해 오고 있는 성당단체들의 양적 수치를 의미하여 다음의 단일 설문문항으로 측정되었다 : “귀하는 현재 본당 공동체 활동(소공동체, 레지오, 연령회 등)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전혀 없다, ②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③1개, ④2개, ⑤3개 이상). 이 측정항목의 평균값은 2.320($SD=1.176$)이었다.

2) 신앙지식

신앙지식은 <성경, 미사, 기도, 성사, 성직자, 봉헌, 선교, 공동체참여, 나눔, 사회교리> 등 총 10개 영역의 종교지식을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모른다; 5=매우 잘 알고 있다) : “하느님을 가까이 만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자에게 주일 미사와 대축일 미사 참여가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감사, 용서, 청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인간 삶의 결정적인 순간(탄생, 성장, 혼인, 죽음)마다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전함으로써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제는 성품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은 하느님 말씀의 교역자, 성찬례와 성사의 집전자, 하느님 백성의 교육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당 신자로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교무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신자에게는 선교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당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본당 공동체 활동에 함께해야 함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10개 측정항목들의 신뢰도값(α)은 .887이었으며, 평균값은 4.111(SD=0.543)이었다.

3) 종교성

가톨릭신자들의 종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인 <성경, 미사, 기도, 성사, 성직자, 봉헌, 선교> 등 총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성직자 영역의 경우, 가톨릭교회에서의 사제직은 평신도들에게 역할모델(role model)과 영성적 삶을 통해 그들의 신앙적 감화를 이끌고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총 7개 설문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 “하느님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까?”, “미사를 통해서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으십니까?”, “기도함으로써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성체성사,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사제의 모습이 자신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십니까?”, “헌금 봉헌 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십니까?”, “귀하의 선교 활동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이 7개 측정항목들의 신뢰도값(α)은 .833이었으며, 평균값은 3.671(SD=0.586)이었다.

4) 시민적 참여의도

시민적 참여의도는 환경문제 및 사회문제를 위한 신자들의 참여의향으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는 시민적 참여행위가 사회적 자본의 시민적 덕목(civic virtue) 특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목하였다. 즉, 환경·생명·인권 분야 모두 공공선 창출과 시민적 덕목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변인은 다음의 단독 문항을 통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 “귀하는 생명수호, 환경보호, 인권보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평균값은 3.510(SD=0.889)이었다.

5) 통제변인 : 성별, 연령, 세례후기간, 본당소속기간, 견진성사유무

본 연구의 통제변인으로 인구사회적변인 2개(성별, 연령)와 신앙지식과 종교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3개의 변인들(세례후기간, 본당소속기간, 견진성사유무)을 포함하였다. 가톨릭교회에서의 견진성사는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 깊게 내리게 하고, 교회와의 유대강화, 교회사명예의 참여, 신앙증언을 돕는 성사(sacrament)로 여겨지는 예식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16항). 본 연구는 견진성사여부가 가톨릭신자들의 신앙성숙과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하였기에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6.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변인들의 특성 및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4.1(Hayes, 2018)을 이용한 모델 6번 분석을 선택하였다. <연구가설 1~5; 연구문제 1> 검증을 위한 직렬이중매개분석의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세례 후 기간, 본당소속기간, 견진성사유무를 투입하였다. PROCESS 매크로에서 사용되는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여 신뢰구간 95%와 재표본수 5,000개를 설정하였다. 이 방식을 사용한 간접효과는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해당 매개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Hayes, 2018).

IV. 연구결과

1. 표본 특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여성(n=543, 64.3%)의 비율이 남성(n=301, 35.7%)보다 높았다.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13세 이하 4.6%, 14~19세 5.8%, 20~29세 4.4%, 30~39세 3.4%, 40~49세 16.8%, 50~59세 25.1%, 60~69세 22.7%, 70~79세 14.0%, 80세 이상 3.2%로 확인되었다. 세례 후 기간의 경우 5년 이하 8.1%, 6~10년 8.1%, 11~15년 11.9%, 16~20년 12.3%, 21년 이상 59.6%로 조사되었다. 본당소속기간은 평균 119.81개월(SD=75.958, min=1,

max=300)이었으며, 견진성사를 받은 비율은 82.9%, 받지 않은 비율은 17.1%이었다.

2. 주요 변인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상관관계분석(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을 실행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핵심변인으로 ‘종교공동체 참여’, ‘신앙지식’, ‘종교성’, ‘시민적 참여의도’가 포함되었다. 이외에 통제변인들로 성별, 연령, 세례 후 기간, 본당소속기간, 견진성사여부가 포함되었다. 상관관계분석결과, 시민적 참여의도는 세 가지의 핵심변인들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종교공동체 참여($r=.118$, $p<.01$), 신앙지식($r=.316$, $p<.01$), 종교성($r=.278$, $p<.01$)]를 보여 주었다. 또한 통제변인들 중 오직 연령($r=-.217$, $p<.01$)만이 유의미한 부정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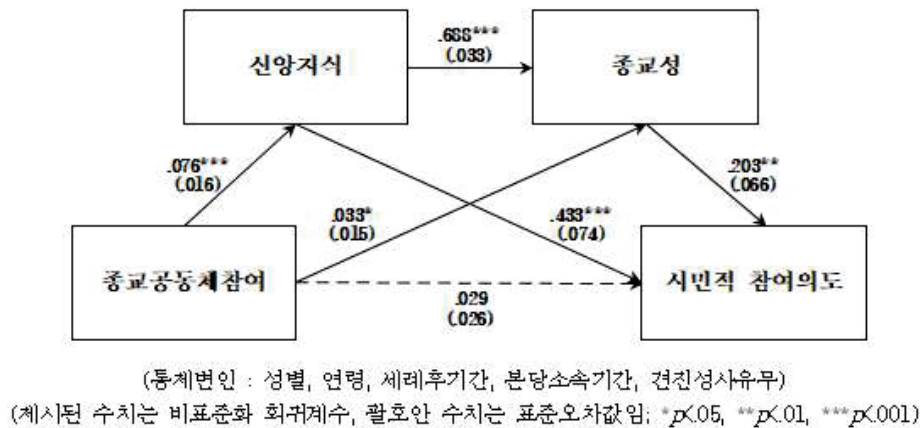
<표 1> 측정변인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성별(남=0, 여=1)	-								
2. 연령	.105**	-							
3. 세례후기간	.124**	.375**	-						
4. 본당소속기간	-.001	.226**	.376**	-					
5. 견진성사 여부 (No=0, Yes=1)	.084*	.318**	.440**	.306**	-				
6. 종교공동체 참여	.084*	-.003	.027	.150**	.114**	-			
7. 신앙지식	.138**	.129**	.209**	.130**	.200**	.189**	-		
8. 종교성	.156**	.096**	.063	.053	.035	.177**	.624**	-	
9. 시민적 참여의도	.003	-.217**	-.042	-.010	-.032	.118**	.316**	.278**	-

* $p<.05$, ** $p<.01$

3. 이중매개효과 검증

종교공동체 참여와 시민적 참여의도의 관계에서 신앙지식과 종교성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중 Model 6(Hayes, 2018)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행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이중매개모형 분석결과

1) 경로별 효과크기

5개의 변인통제 후 종교공동체 참여가 시민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p 값이 .264이고 효과의 크기는 .029($SE=.026$)이며 부트스트래핑 하한값(-.0583)과 상한값(.3912) 사이에 0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종교공동체 참여가 신앙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었고($B=.076$, $SE=.016$, $p<.001$; $CI=.044\sim.108$), 종교성에도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B=.033$, $SE=.015$, $p<.05$; $CI=.004\sim.062$). 신앙지식이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였으며($B=.688$, $SE=.033$, $p<.001$; $CI=.624\sim.752$), 시민적 참여의도에도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B=.433$, $SE=.074$, $p<.001$; $CI=.288\sim.577$). 마지막으로 종교성이 시민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B=.203$, $SE=.066$, $p<.01$; $CI=.074\sim.332$). 요컨대, 종교공동체 참여와 시민적 참여의도와의 관계(RQ1)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임을 확인되었다.

2) 간접효과

먼저 총 간접효과의 크기는 .050이며 부트스트래핑 하한값(.028)과 상한값(.076)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두 개의 단순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첫번째 ‘종교공동체 참여 → 신앙지식 → 시민적 참여’ 간접효과의 크기는 .033($SE=.010$)이며 부트스트래핑 하한값(.015)과 상한값(.054)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두 번째 ‘종교공동체 참여 → 종교성 → 시민적 참여’의 간접효과의 크기는 .007($SE=.004$)이며 부트스트래핑 하한값(.000)과 상한값(.016)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종교공동체 참여 → 신앙지식 → 종교성 → 시민적 참여’의 간접효과 크기는 .011($SE=.005$)며 부트스트래핑 하한값(.002)과 상한값(.021)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각각의 간접효과 간의 통계적 유의 차이(contrast)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간접효과와 두 번째 간접효과 간의 효과차이는 .026(SE=.011)이며 부트스트래핑 하한값(.005)과 상한값(.050)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첫 번째 간접효과와 세 번째 간접효과 간의 효과차이는 .022(SE=.011)로 부트스트래핑 하한값(.046)과 상한값(.003) 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간접효과와 세 번째 간접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oot CI=-.015~.004).

〈표 2〉 간접효과

경로	coefficient (SE)	Boot CI
간접효과1: 종교공동체 참여→신앙지식→시민적 참여의도	.033 (.010)*	.015~.054
간접효과2: 종교공동체 참여→종교성→시민적 참여의도	.007 (.004)*	.000~.016
간접효과3: 종교공동체 참여→신앙지식→종교성→시민적 참여의도	.011 (.005)*	.002~.021
간접효과1 - 간접효과2	.026 (.011)*	.005~.050
간접효과1 - 간접효과3	.022 (.011)*	.003~.046
간접효과2 - 간접효과3	-.004 (.005)	-.015~.004
총간접효과	.050 (.012)*	.028~.076

* 통계적으로 유의미

V. 논의

본 연구는 한국천주교 수원교구의 모 본당에 소속된 가톨릭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종교공동체모임 참여가 신앙지식과 종교성을 매개로 환경·사회문제를 위한 시민적 참여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공동체모임 참여는 신앙지식과 종교성에 각각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신앙지식은 종교성과 시민적 참여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종교성 역시 시민적 참여의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중매개모형에서 종교공동체모임이 시민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간접효과의 경우 세 가지 효과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검증되었다. 특히, 종교공동체 참여→신앙지식→시민적 참여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의의는 환경보호·인권보호·생명수호 영역의 참여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점이다. 종교공동체 내의 소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효과를 단순히 사회적 연결망에만 한정시키기보다는 그 과정에 이루어지

는 종교적 요인들(신앙지식 및 종교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정체성 이론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종교조직으로서의 가톨릭교회가 어떻게 시민적 참여라는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퍼트남과 캠벨(Putnam, 2000; Putnam and Campbell, 2010)은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사회적 자본을 창출·발전시킬 수 있는 보고이자 인큐베이터임을 강조하였다. 교회라는 종교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적 덕목·기술 등을 습득하고 협력과 연대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그 안에 작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톨릭신자들의 종교공동체 중 교회 내의 소공동체모임에의 참여빈도가 구성원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종교공동체 참여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요인인 신앙지식과 종교성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종교적 요인을 바탕으로 종교공동체 참여가 환경·사회문제를 위한 사회적 참여의도가 강화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퍼트남(Putnam, 2000)이 분류한 사회적 자본의 두 유형인 ‘결속 사회적 자본’과 ‘교량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는 신앙지식과 종교성이 내부의 사회적 자본을 외부로의 사회적 자본으로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종교공동체 내부구성원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결속 사회적 자본이 이 두 가지의 종교적 요인들을 매개로 외부로의 자산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참여’가 구성원들의 연계망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적 덕목과 실천을 창출한다는 퍼트남과 캠벨의 연구를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종교공동체 참여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연계망은 신앙지식·종교성 요인들을 통해 그들의 외부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함의점은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이 환경·사회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톨릭신자들의 신앙지식과 종교성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히 환경·생명수호·인권문제를 신앙지식과 종교성 관점에서 다루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이중매개모델에서 종교공동체 참여가 시민참여의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퍼트남과 캠벨(Putnam and Campbell, 2010)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들은 교회출석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이 사회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역설하였고, 이는 종교성의 영향력보다 교회소속을 통한 연결망을 강조한 것이었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종교공동체의 결속 사회적 자본이 교량 사회적 자본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신앙지식과 종교성의 매개역할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종교공동체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연결망은 일반 세속공동체 참여를 통해 획득되는 연결망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두 공동체의 결속 사회적 자본은 공통적으로 해당 공동체구성원들의 동질성과 상호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종교적 가치가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후자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하겠다. 결국 종교공동체의 결속 사회적 자본의 연결망은 신앙지식과 종교성이라는 요인을 통해 교회의 공적·사회적 책임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지식과 종교성은 본 연구를 통해 종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시민참여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

는 선행변인임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선행연구(정규현·오세일, 2021)와 유사한 모습을 띤다. SIT관점에서 본다면 이 변인들은 종교공동체의 정체성과 결속력을 생성·발전·유지하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교공동체 참여를 통해 증진될 수 있다. 그린필드와 마크스(Greenfield and Marks, 2007)가 주장한 것처럼, 종교참여를 통해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시민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공동체라는 사회적 장소이자 공론의 장 안에서 그 구성원들은 신앙지식을 쌓고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천적 행위를 이끌 수 있는 신앙지식의 역할을 주목하게 된다. 한편, 신앙지식과 종교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종교공동체에서 선포하는 신앙교리·가치·규범 등의 지식을 통해 종교성을 키워나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구성원의 자기정체성을 나타내는 종교성이 소속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으로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앙지식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면서 종교성과 시민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문헌고찰에서 검토한 것처럼 ‘지식’은 특정 대상·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자, 해당 대상·이슈에 대해 얼마나 많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확신이라 하였다(Brucks, 1985). 신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종교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론의 장이라는 교회조직에 참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방적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종교적 지식에 접근하여 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소통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검증한 간접효과 중 종교공동체 참여→신앙지식→시민적 참여의도로 이어지는 매개과정의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앙지식의 매개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종교공동체 참여라는 결속 사회적 자본이 교량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앙지식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측정된 신앙지식이 <성경, 미사, 기도, 성사, 성직자, 봉헌, 선교, 공동체참여, 나눔, 사회교리> 등 총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가톨릭교회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신자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횡단자료(cross-sectional data)를 사용하는 것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계열분석이나 실험연구로 수집한 자료분석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특정지역에 위치한 성당의 소속된 신자들이었다. 이는 편의표집으로 추출된 표본이라는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확률표집법을 사용하여 외적타당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차자료로 분석된 설문도구 가운데 ‘종교공동체 참여’와 ‘시민적 참여의도’ 변인들의 경우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적 참여의도의 경우 생명·환경·인권을 한 문항 안에서 측정되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참여의도를 개별적 측정함으로써 좀 더 세분화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영역과 함께 성, 세대, 정치, 인종, 빈곤, 불평등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참여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인 ‘시민적 참여의

도'의 경우 실제행위가 아닌 행동의도로 측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행동의도가 실제행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는 점(Fishbein and Ajzen, 1975)에서 이러한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2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강철희, 2009, 「종교인구의 사회봉사 참여수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1): 5-34.
- 경동현 · 이미영, 2021, 「팬데믹 2년, 교회의 사목적 대응과 전망 그리고 가톨릭 시민의 가능성」, 『신학전망』, 215: 70-120.
- 송재룡 · 조광덕, 2015, 「종교 및 종교성이 사회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75(2): 1-45.
- 유경춘, 2009, 「생태 위기 시대를 위한 가톨릭 사회 교리」, 『가톨릭신학과 사상』, 64: 113-151.
- 이준웅 · 김은미 · 문태준, 2005,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 대중 매체 이용이 신뢰, 사회 연계망 활동 및 사회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9(3): 234-385.
- 전명수, 2016, 「종교기반 시민사회단체의 복지활동과 시민사회의 발전 : 종교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0: 1-31.
- 정규현 · 오세일, 2021, 「천주교 평신도의 사회 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신학전망』, 214: 168-216.
- 정상호 · 조광덕, 2016, 「종교 및 종교성이 대학생의 신뢰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아시아연구』, 19(3): 115-146.
- 정현 · 정문기, 2019,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3동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1): 3-36.
- 한대희, 2019, 「신약성서 연구에 있어서 사회 정체성 이론의 적용과 기여」, 『신학사상』, 187: 365-390.
- Baker, C., 2012, "Social identity the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Biblical Theology Bulletin*, 42(3): 129-38.
- Brucks, M., 1985, "The effects of product class knowledge on information search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1-16.
- Cardwell, J. D., 1980, *The Social Context of Religiosity*,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Supplement*, 94: S95-S120.
- Ellison, C., and Sherkat, D., 1995, "The "semi-involuntary institution" revisited: Regional variables in church participation among blacks", *Social Forces*, 73(4): 1415-1437.
- Eskelinen, V., Pauha, T., Kunst, J., Räsänen, A., and Jasinskaja-Lahti, I., 2021, "Exploring religiosity and attitudes towards Christians and non-believers among recent Muslim refugees to Fin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0: 206-216.
- Eyerman, R., and Jamison, A. 1991. *Social Movements: A Cognitive Approach*,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Fishbein, M., and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iley Publishing Company.
- Fortner, R. S., 2007, *Communication, Media, and Identity: A Christian Theory of Communicat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 Goddard, T., 2005, "Corporate citizenship: Creating social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in Practice*, 15(3-4): 433-438.
- Greenfield, E. A., and Marks, N., 2007, "Religious social identity as an explanatory factor for associations

- between more frequent formal religious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7(3): 245-259.
- Habermas, J., 1989, “The public sphere” , In S. E. Bronner and D. Kellner (eds.), *Critical Theory and Society: A Reader*, New York: Routledge, 136-142.
- Hayes, A., 2018,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oldcroft, B. B., 2006, “What is Religiosity” , *Catholic Education: A Journal of Inquiry and Practice*, 10(1): 89-103.
- Jeong, H. O. 2010, “How do religions differ in their impact on individuals’ social capital? The case of South Kore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9(1): 142-160.
- Jin, B., and Kim, S., 2014, “Telethon viewing,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 *Communication Quarterly*, 62(3): 253-268.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 s declining social capital” ,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Putnam, R. D., and Campbell, D. E., 2010, *American Grace: How Religion Divides and Unites Us*,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Sherkat, D., and Ellison, C., 1999, “Recent developments and current controversies in the sociology of religion” ,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363-394.
- Smith, C., 1996, “Correcting a curious neglect, or bringing religion back in” , In C. Smith (ed.), *Disruptive Religion: The Force of Faith in Social-Movement Activism*, (pp. 1-28) NY: Routledge.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and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 In S. Worchel and W. Austin (eds.), (pp. 7-24)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IL: NelsonHall.
- Vignoles, V. L., Regalia, C., Manzi, C., Gollledge, J., and Scabini, E., 2006, “Beyond self-esteem: Influence of multiple motives on identity construction”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2): 308-333.
- Verkuyten, M., 2007, “Religious group identification and inter-religious relations: A study among Turkish-Dutch muslims” ,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0(3): 341-357.
- Warner, R. S., 1997, “Religion, boundaries, and bridges” , *Sociology of Religion*, 58(3): 217-238.
- Wicks, J. L., Morimoto, S., Wicks, R. H., and Schulte, S. R., 2017, “Are religious factors associated with political consumerism? An exploratory study” , *Journal of Media and Religion*, 16(3): 81-92.
- Gallup, 2022, 「Belief in God in U.S. Dips to 81%, a New Low」, <https://news.gallup.com/poll/393737/belief-god-dips-new-low.aspx>, (검색일: 2023.01.01.)
- Pew Research Center, 2014, 「Religious Landscape Study」,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religious-landscape-study/frequency-of-prayer/>. (검색일: 2023.01.01.)
- Pew Research Center, 2019, 「What Americans know religion」,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19/07/23/factors-linked-with-religious-knowledge/>. (검색일: 2023.01.01.)

Impact of Catholic Laypeople's Participation in Religious Communities on Civic Engagement Intention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Dual Mediating Effects of Religious Knowledge and Religiosity

Jin, Bumsub
(Hongik University)

Subject

Social Sciences, Sociology, Psychology, Religious Studies

Key words

Social Capital, Social Identity, Religious Knowledge, Religiosity, Civic Engagement, Life Protection

Summary

Efforts to resolve or mitigate environmental, human rights, and pro-life issues are required of members of religious communities. To address these issues, members of religious communities may seek civic engagement based on their social capital and social identity within their communit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sses through which members of the Catholic Church can demonstrate civic engagement for environmental, human rights, and pro-life issues by focusing on the inherent role of the church community in realizing the common good. The results of the dual mediating analysis of responses collected from a Catholic parish showed that religious community particip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religious knowledge and religiosity, and religious knowledge had a positive effect on religiosity and civic engagement intention. Religiosity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ivic eng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intention,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religious knowledge and religios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articular, the magnitude of the indirect effect from religious community participation to civic engagement intention through religious knowledge was the largest. Based on its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the role and importance of religious factors in the civic engagement of Catholic Church laypeople. Specifically, it can be expected that bridging social capital can be created through the dual mediating role of religious knowledge and religiosity.

접 수 일 : 2023년 4월 9일

심사완료일 : 2023년 5월 9일

게재확정일 : 2023년 5월 9일